

글. 이관석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한지, 다소 영똥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불황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 건축사 학위를, 파리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움>(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시간의 연속성 상에 위치한 건축의 올바른 자세와 건축의 기초에 관하여〉

5년제 건축학교육인증제가 시행되는 등 좋은 건축사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건축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희망이 오늘의 교육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축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이 건축 발전의 기본조건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건축역사는 제도권 건축교육이 때때로 시대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공적 교육체제와 현실의 괴리라는 당면과제는 다른 한편으로 혁신적 교육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글은 제도권 교육체제에 강하게 반발했던 건축사로 알려진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아카데미즘으로 대변되는 당시 건축교육체제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건축학도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는, 즉 자신이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사양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이 가르치기 위해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더욱이 적절한 건축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야 했으며, 또한 개인적인 공부에 너무 바빴고 자주 해외로 여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교육계를 장악한 채 건축 주류로 행세하던 아카데미즘 인사들과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마찰도 그로 하여금 교육에 몸담는 것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르코르뷔지에가 기존 교육체제를 공격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외면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솔한 강연과 저서를 통해 건축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유념해서 공부해야 할 것으로 권유한 것들에는 그가 생각하는, 자신과 대척점에 있던 제도권 건축교육체제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렇게 강연과 저서를 통해 그가 젊은이들에게 권고한, 새로운 건축에 합당한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교육

내용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르코르뷔지에가 유념하는 건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오늘날 우리의 건축교육에 시사하는 바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그가 일생을 통해 저술한 50여 권의 책이다. 이 중 건축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길게 언급한 초기 사례는 1929년 그가 아르헨티나 예술동호회의 초청으로 남미를 방문했을 때 열 차례 행한 강연 내용을 담은 『프레시지옹(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에 나온다. 그중 여덟 번째 강연인 「세계도시와 즉흥적 고찰」장에서 ‘만약 건축을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대중의 질문이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자문자답 형식이 건축교육과 직결된 내용이다. 그가 다른 강연에서도 초반에 여러 차례 그 자리에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환기시킨 데서 『프레시지옹』 내용 전반이 건축학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서들 중 건축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또 하나의 책은 1943년에 발행된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Entretien avec les étudiants des écoles d'architecture, 이하 『대화』)』이다. 르코르뷔지에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에콜데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서 건축을 배우던 학생들이 그에게 스튜디오를 열어주기를, 그것이 안 되면 조언이라도 해주길 요청했을 때 직접교육을 대신해 저술했던 책이다. 이 두 책의 내용은 건축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그의 바람을 집약한 것으로, 건축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은 그가 저술한 책들 곳곳에 담겨 있다. 다분히 계몽적이었던 르코르뷔지에의 저서들이 건축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자신이 판단한 사안들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제시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건축 작품을 담고 있는 여덟 권의 『르코르뷔지에

작품전집(Le Corbusier Oeuvre complète)을 “근대적인 건축교육의 선언서”로 여겼다. 자신의 건축 작품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담은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건축학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생각을 담은 『대화』에 나오는 폭넓은 개진을 본 글을 전개해나가는 중심축으로 볼 때 이 보다 13년 전에 발간된 『프레시지옹』에는 상당 부분 유사한 견해가 담겨 있다.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일관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인 『프레시지옹』에서 나오지 않는 언급들은 그가 발간한 여러 저서들을 참조하며 내재된 의미를 추적한다.

르코르뷔지에가 생각한 건축학습 내용

르코르뷔지에는 『대화』에서 여러 각도로 건축을 숙고하고 공부할 것을 충고했다.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한 쪽의 짧은 내용을 지닌 1장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책 내용이 세대차를 허물고 진솔한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2장 「무질서」는 방향을 잃은 당시의 건축이 죽었음을, 그러나 교육이 마땅히 끝내야 할 무질서를 바로 잡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3장 「주거의 건설」은 살아가는 환경에 주의조차 기울인 적이 없는 당시 교육을 질타하며 단순히 건축 유형의 문제가 아닌 인간 복원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열여섯 절로 나뉜 4장 「건축」은 하늘과 태양 및 대지와 건축의 관계, 스케일, 내·외부 공간에서의 움직임, 자신의 소비에트 회관 계획안에 적용됐던 과감한 창안, 기술과 재료, 조화, 구조, 건축사의 영감의 원천인 의도의 중요성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통과 토착성 문제가 세 절에 걸쳐 다뤄졌다. 5장 「워크샵에 대해서」는 자기의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비난을 거듭하는 이들에 대한 지탄과 바람직한 가르침의 형태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언급은 전술한 대로 13년 전에 자신이 건축교육자였다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강연한 『프레시지옹』에 이미 포괄돼 있다. 이 두 책에서 표출된 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이 표는 르코르뷔지에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를 네 가지로 대별한다. 첫째, 당시의 그릇된 건축 현상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건축이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하는지, 무장해야 할 시대정신은 어떠한지 등 시간의 연속성 상에 위치한 건축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교육에서의 주안점		상세 내용
건축과 시간	현상 직시와 반성	시대정신이 결여된 과거의 무분별한 수용과 잘못된 교육, 유형 질타
	과거로부터의 교훈	전통, 토착성, 민속문화, 고전의 중요성 강조
건축의 기본	대지	하늘, 기후, 태양, 부지 등의 자연조건에서 나오는 건축
	내·외부 공간과 동선	근대적 공간성과 동선 중시
	주거	건축의 기본으로서의 주거 연구
건축과 기술	구조와 재료	(정)역학을 포함한 구조 및 재료
	건축 환경	소음, 단열, 방청, 냉난방 등
건축과 정신	정신적 측면	의도, 조화와 비례
	생각과 표현	스케일, 색채와 글쓰기/스케치

<표1>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

둘째, 제대로 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출발점이 어떠한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건축 공부와 작업의 기본을 거론한다.

셋째, 이전 건축과 달라야 하는 새로운 건축이 참조해야 할 기술에 대한 건축사의 열린 자세와 학습을 권유한다. 앞의 두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여타 순수예술가와는 다르게 건축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소양을 말하고 있다.

넷째, 건축을 정신의 창조물로 여기는 르코르뷔지에가 수준 높은 건축물에 내재돼야 한다고 진솔한 덕목들을 건축과 정신의 항목에 모았다. 의도, 조화, 비례, 스케일 같은 걸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뛰어난 건축물에 엄존하는 덕목들을 토로한 것이다. 글쓰기와 스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분량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전반부 두 장인 「건축과 시간」 및 「건축의 기본」만 실고 후반부 두 장은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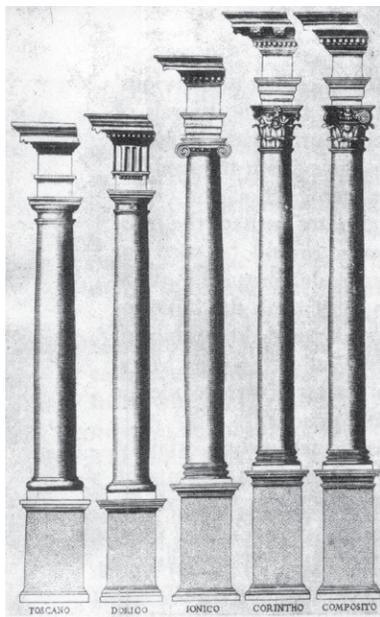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의 건축학습 내용에 담긴 의미

1. 건축과 시간

(1) 현상 직시와 반성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옹』에서 자신이 교수였다면 학생들에

게 뭘 가르쳤을까? 라고 자문한 뒤 당시 건축의 혼돈 상황에서부터 자답을 시작했다. 『대화』의 사실상 첫 장인 「무질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 진단은 아르헨티나라는 신대륙 국가가 시대정신에 따른 활기나 독창성을 띠지 못하고 유럽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미국처럼 비뇰라(Giacomo da Vignola)의 주범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으며, 낡은 규칙에 깊이 파묻힌 채 안주하여 건축이 죽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건축의 다섯 오더 규범(Regola delle cinque ordini d'architettura), 비뇰라, 1562

위의 두 책에서 르코르뷔지에에는 이러한 과거 회귀적인 건축을 경계할 때 바로크 시대 건축사 비뇰라의 주범을 자주 거론했다. 정형화되고 양식화된 과거 건축의 규범을 가르치느라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이다.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한 비뇰라의 '건축의 다섯 오더 규범(Regola delle cinque ordini d'architettura, 1562년)'으로 대변되는 주범과 장식을 금과옥조로 여긴 당시 교육 세태에 대해 주범이라는 병이자 해악을 금지하는 데에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기지의 사실대로 당시 건축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건축에 걸맞지 않은 기존 주류 세력들의 건축관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됐다. 「무질서」 장의 첫 문장은 건축이 전례 없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며, 곧이어 기계화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력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갈파했다. 프랑스 교육이 창조적인 노력이나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에 매진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함도 지적했다. 당시 주류들이 획책한 비정상적인 판단들의 예로 1927년 제네바의 국제연맹본부 현상설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소란을 들었다. 이것은 1928년에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의 3차 증보판을 찍을 때 추가됐던 서문 「고열상태」에서 과거로 회귀한 아카데미즘의 농간에 의해 공동 1위를 했던 자신의 작품이

결국 배제된 상황에 통분했던 사건을 되새긴 것이다.

바른 해결책은 명료하게 진술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그는 교육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과제로 그릇된 현상에의 직시와 반성을 우선했다.

(2) 과거로부터의 교훈

그렇다고 해서 르코르뷔지에가 과거를 모두,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앞서 연재된 르코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글(8월호)에서 이미 확인했다. 고전과 전통에 대한 그의 호의와 조예가 상당했음도 보았다. 여기서는 그가 후학들을 위한 조언에서 적잖은 분량을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할애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거론했던 내용을 살펴본다.

르코르뷔지에에는 『프레시지옹』에서 주범에 의한 상상할 수 없는 실패를 멈추게 하는 데서, '건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며 교육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자신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위대한 감동을, 파르네세 궁전의 장려함을, 미켈란젤로와 알베르티가 개입한 성 베드로 성당의 후진(apse)과 파사드 사이에 열린 정신적인 심연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1911년에 떠난 동방여행 중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받았던 감명과 교훈은 재론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르코르뷔지에의 아크로폴리스 스케치, 1911

시대정신에 합당한 건축을 주창하며 쓴 『건축을 향하여』에도 사일로나 철교, 자동차와 대양횡단증기선, 비행기 같은 기술의 산물 뿐 아니라 힌두교 사원, 성소피아 사원, 테베의 사원, 암만 궁전,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물들, 파리 개선문, 카피톨 언덕의 주피터 신전, 베르사유 궁전의 프티 트리아농 등 과거 건축에 내재된 교훈

이 속출한다. 별도의 「로마의 교훈」장에서는 콜로세움, 콘스탄틴 개선문, 판테온, 코스메당의 성모 마리아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후진 등 역사적 유적들도 설명된다. 르코르뷔지에가 지적한 그릇됨은 미켈란젤로 이후 깊은 잠에 빠져 발전이 없었다고 본 르네상스 시대 로마 이후의 형편없는 취향에 집중돼 있었다. 로마의 교훈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저항하고 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과거야 말로 나의 스승이며 앞으로도 계속 인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르코르뷔지에가 고백한 「대화」에도 전통의 중요성과 특히 토착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술돼 있다. 그는 전통으로부터 피어난 꽃인 토착적인 것에 대한 공부가 당시 건축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통한 해법을 급방 주지는 못하겠지만, 토착성 연구가 시간의 혹독한 시험을 견뎌낸 방법들 속에서 보다 심오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요구에 대해 알게 해줌을 간파하고 학습을 독려했다. 과거의 무조건적 답습은 오만과 나태일 뿐이었다.

과거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하자는 르코르뷔지에의 자세는 「모든 아카데미즘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을 단 아르헨티나에서의 첫 번째 강연에서 먼저 표명됐다. 그는 여기서 아카데미즘의 정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원인을 검증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 질문에 '나'를 개입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내린 후, 사람들이(아카데미즘에 저항하는) 자신을 혁명가로 여기지만 자신은 과거라는 한 명의 스승을 모신다고 고백했다. 또한 유일한 교육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라고까지 단언했다. 과거에서 역사와 사물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교훈을 발견했으며, 모든 사건과 모든 대상이 과거의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이 자신이 학교에서 강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제의받은 교수직을 사양한 이유라고도 했다. 격식과 관습에 얽매인 학교가 아닌, 박물관 답사나 여행, 민속 연구 등에서 농부들이나 천재들이 만든 순수한 작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봤을 만큼 과거에 대한 공부를 소중히 여겼다.

르코르뷔지에가 학생들에게 토착성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통제가 어려운 어지러운 시기에 이 혼돈을 잠재워줄 방법과 뚜렷한 척도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창조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고 감성을 키워주며 대지 위에 우리의 창조적인 본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토착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토착적인 것들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을 로마가 아닌 프랑스 시골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

의 활기찬 모습을 흠뻑 받아들이고 여기에 근대 기술이 가져다 준 방법과 도구를 갖추게 된다면 새로운 토착성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봤다. 1911년에 떠난 동방여행 중에 각 지방의 민속 도자기들이 지닌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던 르코르뷔지에는 오로지 차별화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도안된 공장생산 도자기의 번덕을 지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전통을 깬 그리 부정하는 당시의 괴벽을 애용해했다. 창의력을 그릇 이해했다는 것이다.

가장 혁신적인 것이 계속 전진하며 미래로 이끄는 믿을 만한 지침으로 전통을 이해한 르코르뷔지에는 당시 건축과 교육을 장악한 '비놀라화된 육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놀라를 배우는 이들에게 진정한 건축의 이미지는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충고했다. 과거의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계승해야 할 정신적 가치를 든든한 기반으로 하면서 시대 기술을 반영해 발전된 건축을 하자는 것이다.

2. 건축의 기본

(1) 대지에서 출발하는 건축

당시는 건축이 대지조건을 고찰하며 배태된 개념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라는 오늘날의 상식이 낫선 때였다. 형식화된 대규모 건물이 아니면 건축에 끼지도 못했던 그때는 좌우대칭을 기본으로 한 위엄과 격식 추구가 건축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아카데미즘이 횡행하던 때로서 다수의 건축사는 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르코르뷔지에는 외부에서 보면 건축이 단순히 대지에 부가되는 것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대지와 하나로 융합돼야 한다고 여겼고, 1911년의 동방여행을 통해 대지의 중요성을 깨달아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지가 우리의 눈에 의해 감각에, 지성에, 그리고 감성에 주어지는 자양분임을, 대지가 건축의 토대임을 강조했다. 건축은 그것이 서있는 자연 상태의 대지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아가 대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대지를 중시한 사례 중 하나인 피르미니 성당(L'Église de St. Pierre de Firminy Vert, 1961~2006)을 설계하며 당초 대지로 지정됐던 마일광장(Place du Mail) 대신 현재의 건립 장소를 직접 선정한 후 지반 등의 문제로 공사 중단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치를 고수했다. 계곡의 낮은 곳이라는 대지의 미덕으로 인해 쌍곡면의 벽이 발상됐기 때문에 같은 설계를 다른 곳에 건립하라는 요구를

그는 수용할 수 없었다. 건축은 대지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때문에 역시 대지의 특성에서 발상된 롱상 순례자교회와 라투레트 수도원에 이어 세 번째의 교회 유형으로 제시했던 이 성당의 완공을 그는 볼 수 없었다.



피르미니 생피에르 성당, 르코르뷔지에, 피르미니 베르, 196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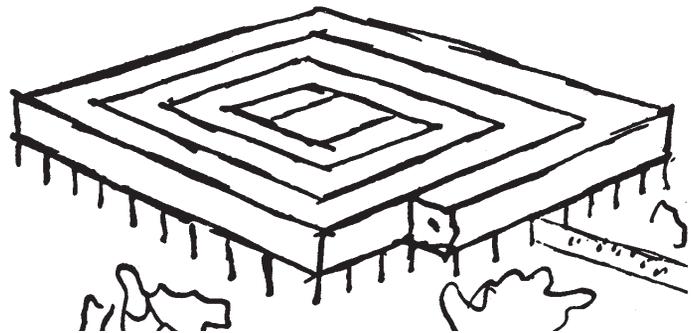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는 학생들에게 대지를 얘기하며 지형적 조건뿐 아니라 가장 지배적이며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하늘을 거론했다. 덥거나 온화하거나 추운 기후와 또 다른 지역적 조건들이 삶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건축이 호응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1942년 제시했던 알제 시와 주변 지역을 위한 마스터플랜에서 건축의 기초조건인 자연경관, 지형 및 기후 조건이 실제 프로그램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지를 구획하는 법칙을 결정할 때 이 대지의 법칙으로 인해 건축은 자의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고 원칙과 형태, 그리고 통일된 전



알제시 도시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30

체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르코르뷔지에가 자신의 건축 개념을 고수하면서도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1931년의 파리현대미술관 계획안에서 시작해, 1965년에 계획을 시작했으나 급작스런 사망으로 중단된 20세기 박물관 계획안까지, 르코르뷔지에가 오랜 기간 연구해온 무한성장박물관(Musée à Croissance Illimitée) 개념이 실현된 세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양호한 기후로 무한성장박물관의 원개념에 가장 충실할 수 있었던 도쿄(국립서양미술관, 1957~59)에서와 달리 고온의 기온(아메다바드 미술관, 1952~56)이나 기습적 호우(찬디가르 미술관, 1964~68)에 대응해야 할 때는 구조와 채광 방식 및 동선에서, 또한 중심공간과 전시공간의 공간성에서 그는 능숙한 변주를 구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재의 세 번째 주제로 상세히 거론할 것이다.



무한성장박물관 개념도, 르코르뷔지에, 1931

인간에게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모친의 외모뿐 아니라 유전자까지 전수받는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지는 특징, 즉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인 유전자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처럼 건축도 대지에서 추출된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지의 올바른 해석이 건축의 출발점이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주장은 오늘날 당연하게까지 여겨지지만, 당시 건축 주류의 인식은 그렇지 못했다.

(2) 내·외부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

르코르뷔지에가 건축교육에서 내·외부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의 건축철학과 작품에 나타나는 이 항목의 높은 위상으로 볼 때 당연하다 하겠다. 그는 건축은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므로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눈높이에서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축의 내·외부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법칙이

잘 추구됐는지 또는 무시됐는지에 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을 정도다. 건축적 경험과 감흥의 유무로 건축의 생사를 판단한 것이다. 『대화』에서도 그가 건축을 내부적인 순환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을 기능적인 의미보다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말한 것에서 그가 특히 내부 공간성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의 다양성을 교향곡에 비유하면서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 걸음에 맞춰 이해되는 건축, 벽면에 머물기도, 그 너머를 투시도적으로 바라보기도, 뭉가를 예감하기도, 놀라기도, 원거리의 조망을 바라보기도 하는 내부공간에서의 질적 성격이 작품의 생물학적 원칙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좋은 건축은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살아있는 건축이라는 그의 충고는 반두스뷔르흐(Theo van Doesburg)가 전(全)방향으로,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수평적이면서 대각선적으로, 르코르뷔지에가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려 했던 이유를 알려준다. 과거 건축의 일방향적·단절적·폐쇄적 공간을 떠나 다방향적·연속적·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을 지향해야 함을 조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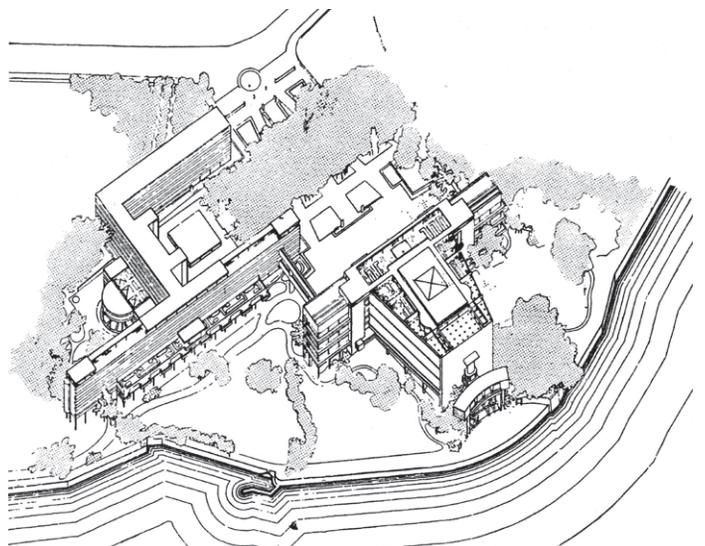
공간과 시간이 합체되는 동선은 르코르뷔지에가 건축과 도시계획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키워드였다. 그가 건축적 즐거움을 일으키는 수백 개의 연속적 지각이라고 설명한 ‘건축적 산책(à la promenade architecturale)’ 개념은, 중국정원에서 사려 깊게 고안된 전경이 마치 사진첩처럼 점차적으로 펼쳐지듯이 연속되도록 의도되는 산보처럼, 근대건축의 공간성을 차례로 전개해나가는 시나리오와 결부되어 그가 생각한 건축의 궁극적 목적인 건축적 감동으로 연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를 포함한 여러 주요 근대 건축사들이 새로운 공간성과 동선을 선보였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당시 교육에서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은 철저히 경시됐다.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을 이해하고 시도하고 교육할 수 있겠지만, 건축의 기본인 공간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관찰자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이동을 통해 정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에 생명을 부여하는 동선에 대한 의식 함양은, 1920년대 이후 그의 건축작품 전체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르코르뷔지에가 양보할 수 없는 건축교육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신도 공간을 통한 연속적 움직임의 조직화가 위

대한 건축의 본질이라는, 마치 근대적 가치로만 여겨지는 이 교훈을 역사적 선례들에서 얻었다.¹⁾

(3) 건축의 기본으로서의 주거 연구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교육에서 주거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도 교육 과정에 포함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을 향하여』의 2차 증보판 서문에서 “아무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적 기반을, 인간의 척도를, 필요형(型)을, 기능형을, 감동형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전부다. 인간이 허식을 떠났음을 알리는 훌륭한 시대인 것이다.”라고 썼다. 『프레시지옹』에서 건축의 기본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사례를 든 것도 모두 주거건축을 통해서였다. 문과 창문을 어떻게 만들며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형태의 방을 구성할 것인지, 부속물이 완비된 식당과 부엌, 침실의 기능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얼마만한 면적을 최소의 크기로 잡을 것인지 등을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주거를 통해 연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과 문의 위치를 정하는 다양한 해법에 따라 각각 다른 건축적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다양한 해결책이 바로 건축의 기초라고 그는 생



국제연맹청사 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26~28

1) 『건축을 향하여』의 「평면」과 「평면의 하상」장 참조

각했다. ‘어떻게’와 ‘왜’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을 가르치려고 애쓰면서 ‘모든 것은 관계’라고 말했다.

르코르뷔지에가 교육에서 주거를 이렇게 중시한 것은 그가 주택을 궁전과 같이 발상하는 ‘주택-궁전(Maison-Palais)’ 개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927년 제네바에 세워질 국제연맹 청사(Palais des Nations)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전에 제출할 계획안을 구상하면서 공공청사 또는 궁전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palais)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의 회귀인지 또는 국제연맹이 이 낡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인지를 고심했다. 그 결과 전술된 대로 ‘아무나’라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을 연구하는 것과 인간적 기반을, 인간적 척도를, 필요형을, 기능형을, 감동형을 되찾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인지를 자문했다. 그리고 바로 이 궁전이 ‘아무나’라고 할 수 있을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정확히 대응하는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예정됐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적 척도와 기능형을 고려한 그의 계획안이 동점1등으로 당선됐음에도 결국 진짜 궁전을 계획한 아카데미즘에 밀렸지만, 이 사건은 그가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에서 소규모 주택이나 더 큰 공공청사를 구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르코르뷔지에의 아르헨티나에서의 세 번째 강연내용을 담은 『프레시지움』의 「모든 것이 건축, 모든 것이 도시계획」 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화』에서도 주거와 도시계획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건축-도시계획’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집안 가구나 조명에서부터 도시와 전원지대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도시계획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끼치며 탁자와 의자, 벽과 방, 계단과 엘리베이터, 거리, 도시 등 모든 대상들 속에 건축이 내재된 것으로 봤다. 또한 집안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도시 전체의 패턴 등에 한순간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고 건축과 도시계획이 긴밀한 협조 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물질적 필요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하나로 통합된 목표와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축과 도시계획의 사명이 갖는 위대함을 느끼는 건축인은 주거가 사람들의 일과 직업, 제도, 그리고 사고를 모두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인의 현신적인 사명을 필요로 하는 건축의 기본임을 각성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음 호에서 제시될, 르코르뷔지에가 당시 교육 내용에서 아쉬워했고 학생들에게 공부하기를 권했던 건축과 기술 및 건축과 정신

의 문제에 대한 토로를 종합하면, 당시 건축교육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와 개선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미래를 위해 그린 건축교육의 그림이 그의 사후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육내용을 예견하고 있음을, 그러면서도 지금의 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2. BOESIGER, W. ed.,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57~1965, Edition Girsberger, 1965
3. CIRIANI, Henri & VIÉ, Claude, l'Espace de l'Architecture Moderne, Rapport final de Recherche, Ministère de l'Urbanisme, du Logement et des Transports, 1989
4. CIRIANI, Henri, Faire la lumière, l'Architecture d'Aujourd'hui, Sept. n°282, 1992
5. CONNER, Patrick, Oriental Architecture in the West, Thames & Hudson, 1979
6. Le Corbusier,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7.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8.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9.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0. Le Corbusier, 『르 코르뷔지에의 동방여행』, 최정수 역, 안그라픽스, 2010
11. LUCAN, Jacques,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